

즉시보도용

보도문의:

자신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한 어떤 영화제작자의 갈망
긴 세월, 먼 대륙, 그리고 서로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 헤메는 그녀

2000년 12월 18일 P.O.V에서 방영되는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

독립영화서비스(ITVS)와 “아시아인 아메리칸 방송연합회”(NAATA) 공동 제공

당신 이름은 어떻게 되죠?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어디서 왔어요? 나이 어린 애들도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하지만 한국 태생의 영화 제작자 디안 볼셰이 림(Deann Borshay Liem)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과거로의 기나긴 여행을 떠난다.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자 시작된 그녀의 여정을 그린다. 이는 어려운 때 한국에서 태어나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에 국제입양된 후, 잊혀진 모국에서의 어린 시절 삶에 대한 아스라한 기억의 편린과 새롭게 양부모의 사랑을 받는 미국에서의 자신의 실존적 삶과의 갈등을 극복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한 입양아의 감동적인 스토리이다. 미국 공영 방송 PBS-TV 정규 프로그램으로서 우수한 다큐멘터리 방영으로 정평이 있는 **P.O.V**에서는 2000년 12월 18일 월요일 밤 10시에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를 미국 전역에 방송한다 (방송 스케줄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

1966년 3월 3일 월요일, 한국의 한 어린 여자 아이가 잔뜩 겁에 질린 모습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아놀드와 앨빈 볼셰이 부부의 품에 안겼다. 볼셰이 부부는 어린이들의 양육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2년동안 후원금 \$15씩을 매달 보내오다가, “차정희”라는 어린 소녀를 입양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입양 후 “디안 볼셰이”라는 미국명을 얻은 이 한인 어린이는 전혀 새로운 토양과 생활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볼셰이 가족은 디안을 한가족으로 정겹게 맞아 들였다. 디안의 언니 드니스는, “디안 네가 여기에 온 그 순간부터 너는 내 동생이었고, 더 이상의 말은 필요도 없었지.”라고 말한다. 디안의 오빠 던컨은, “눈 색깔은 다르지만 상관 없어. 웃는 모습이 영락 없이 우리 식구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서, 디안은 한국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고 미국화 과정에 박차가 가해진다. 치어 리더로 활동하고, 호움 컴잉 퀸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는 등 “올 아메리칸 걸”(All American girl)이 되어 적어도 겉으로는 가장 미국적인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하지만, 틈에이저가 된 디안에게 어릴 적 한국에 대한 기억의 편린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신이 “차정희”가 아니라는 것도 아스라한 악몽처럼 떠오르곤 했다. 디안은 미국 어머니에게 “아무래도 난 엄마가 생각하는 그 여자애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원래 이름도 차정희가 아니구요. 난 고아도 아니예요. 아직도 내 친어머니와 친형제 자매가 아마 한국에 살아계실 거예요” 라는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한다.

P.O.V./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 2 쪽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런 느낌들 때문에 디안은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과연 자신은 누구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락에서 빛바랜 사진 두 장을 찾아내게 되었다. 이름은 똑같이 “차정희”라고 뒤에 쓰여 있었지만 얼굴은 판이하게 다른 두 소녀의 사진.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디안 볼셰이는 자신이 있었던 성덕 고아원에 편지를 쓰게 된다.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은 그녀의 평생을 돌이킬 수 없이 바꿔버리고 만다.

놀랍게도 그녀의 친오빠 강호진이 답장을 보내온 것이다. 내용인즉, 그녀의 본명이 차정희가 아니라 “강옥진”이라는 것이었다. 원래의 차정희는 예정대로 미국으로 입양되기 직전에 그 애의 아버지가 고아원에서 빼내어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정희의 입양 수속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었으므로 고아원 측에서는 강옥진을 차정희로 둔갑시켜 보낸 것이다. 누군가 하나라도 더 보내야겠다는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다. 입양 당사자인 볼셰이 부부는 물론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의 가족이 엄연하게 한국에 살아 있고,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뒤바뀌었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된 디안은 한국행을 결심한다. 두 차례의 한국 여행. 어머니의 나라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충격 그 자체였다. “오랫동안 파란눈에 금발머리만을 보고 자란 내가, 이제 내 모습과 흡사한 이 분들과 이렇게 한 방안에 앉아 있다.” 디안은 양쪽 가족이 한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이 한국 가족과 미국 가족을 모두 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느낌을 “내가 실제로 양 가족과 함께 마주 앉고 보면, 그들 모두를 내 안에 함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두 가족이 한 자리에 마주 앉은 느낌은 참으로 가슴 절절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에서는 기쁨과 회한, 우려와 안도감의 눈물이 그칠 줄 몰랐다. 왜 과거의 강옥진이 고아원으로 보내어질 수 밖에 없었던가 등을 포함해 많은 의문에 대한 해답은 구할 수 있었으나, 그녀에게는 새롭게 답을 요하는 또 다른 여러가지 질문들이 다가왔다.

그녀가 볼셰이 가족과 어떠한 삶을 꾸려 왔던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기도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의 한국 가족에 대해 미국의 양부모에게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나를 위해 주시던 그분들의 정성을 저버린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양모인 엘빈 볼셰이에게 이에 대해 터놓고 말문을 열기란 더욱 힘들었다. “지금의 어머님께 한국의 생모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참 막막했어요. 날 키워주신 미국 엄마도 분명 내 어머님이시니까요.”라고 디안 볼셰이 림은 말한다.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는 2000년 선댄스 영화제(2000 Sundance Film Festival)에서 세계적으로 첫 선을 보였고,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San Francisco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최고의 다큐멘터리 대상을 수상했다.

(계속...)

P.O.V./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 3 쪽

이 영화의 제작자
디안 볼셰이 림과의 만남

디안 볼셰이 림(Deann Borshay Liem)은 고교 졸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캄보디아 출신 틴에이지의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영상화한 스펜서 나카사코(Spencer Nakasako)의 에미상 수상작 A.K.A. *Don Bonus*, 그리고 PBS의 P.O.V.에서 1998년에 전국 TV 방송되었던 두 명의 미얀마 십대 난민의 실상을 그린 나카사코의 또 다른 다큐멘터리 *Kelly Loves Tony*의 책임 프로듀서를 지낸바 있다.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볼셰이 림은 미국 아시안 아메리칸 방송연합회(NAATA)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주도로 미국 공영 방송에 방영될 아시안 아메리칸 관련 영화나 비디오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해 자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전국적인 대중 미디어 예술 단체이다. 이번의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은 볼셰이 림의 감독 데뷔작이기도 하다.

제작진

집필/감독/연출 PD:	디안 볼셰이 림 (Deann Borshay Liem)
편집/공동-집필:	비비언 힐그로브 (Vivien Hillgrove)
책임 프로듀서:	비비안 클레이만 (Vivian Kleiman)
영화배경 담당:	마이클 친 (Michael Chin)
사운드 녹음:	사라 친 (Sara Chin)

NAATA/ 미국 아시안 아메리칸 방송연합회
(NATIONAL ASIAN AMERICAN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1980년 이래로 미국 아시안 아메리칸 방송연합회 (NAATA)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관련 방송물들을 미국 대중에게 소개해 온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단체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의 스토리가 미국 주류 방송 매체에서 지금까지 아예 도외시되거나 아니면 커버가 된다 할지라도 왜곡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편향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족되었다. 미국 공영 방송의 재정적 근간이 되는 CPB 재단법인이 출연한 창립 후원금을 바탕으로 첫걸음을 내딛은 NAATA는 문화적 다양성을 알리는 공영 방송을 지원하는 미국내 5대 비주류 방송 컨소시엄(Minority Consortia)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NAATA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으로 방영되는 공영 TV 방송뿐만 아니라, 국제 교육 및 케이블 방송 보급, 연례 샌프란시스코 국제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 그리고 미디어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및 자금 지원과 재정 후원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장되어 왔다.

P.O.V.

P.O.V.는 맥아더 재단(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슈먼 재단 (Florence and John Schumann Foundation),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PBS 그리고 공영 방송 시청자들의 후원금으로 재정 지원되고 있다. “말대꾸”(Talking Back)에 대한 제작 지원은 공영방송재단법인(CPB)이 맡고 있다. P.O.V.는 KCET/로스엔젤레스, WGBH/보스톤 그리고 WNET/뉴욕을 포함한 여러 공영 TV 방송국 컨소시엄을 통해 방영된다. 카라 멀티즈(Cara Mertes)가 현재 P.O.V.의 책임 프로듀서를 맡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 시리즈는 엘렌 슈나이더(Ellen Schneider)가 총 감독을 맡고, 워드 챔벌린(Ward Chamberlin)이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American Documentary 사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

(계속...)

P.O.V./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 4 쪽

ITVS/독립 영화 서비스(THE INDEPENDENT TELEVISION SERVICE)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은 공영방송재단법인(CPB)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독립영화서비스(ITVS)와 제휴하여 제작된 작품이다. ITVS는 미국 공영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독창적인 모험성을 가지며 소수민족 등 비주류 시청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진흥시킨다.”는 취지로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독립 제작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예술 창작의 독립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ITVS는 250편 이상의 단독 프로그램들을 모아 공영 방송에 시리즈로 방영했다. 이들 ITVS 프로그램의 다수가 P.O.V.를 통해 선보였는데, 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선댄스 대상을 수상한 제인 와그너와 티나 디펠리시안토니오(Jane C. Wagner and Tina DiFeliciantonio)의 **GIRLS LIKE US**, 주디스 헬펀드(Judith Helfand)의 피바디 수상작 **HEALTHY BABY GIRL**, 그리고 앨런 벌리너(Alan Berliner)의 에이미상 수상작 **NOBODY'S BUSINESS**가 있다.

(계속...)

P.O.V./ 일인칭 복수 (FIRST PERSON PLURAL)
출연진 프로필

연출 겸 감독

디안 볼쉐이 림 (DEANN BORSHAY LIEM)

디안 볼쉐이 림(Deann Borshay Liem)은 고교 졸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캄보디아 출신 틴에이지의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영상화한 스펜서 나카사코(Spencer Nakasako)의 에이미 수상작 *A.K.A. Don Bonus*, 그리고 PBS의 P.O.V.에서 1998년에 전국 TV 방송되었던 두 명의 미얀마 십대 난민의 실상을 그린 나카사코의 또 다른 다큐멘터리 *Kelly Loves Tony*의 책임 프로듀서를 지낸바 있다. **일인칭 복수 (FIRST PERSON PLURAL)**을 맡기 이전에 볼쉐이 림은 미국 아시안 아메리칸 방송연합회(NAATA)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주도로 미국 공영 방송에 방영될 아시안 아메리칸 관련 영화나 비디오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해 자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는 미 전국적인 대중 미디어 예술 단체이다. 이번의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은 볼쉐이 림의 감독 데뷔작이기도 하다.

출연자

앨빈 볼쉐이(ALVEEN BORSHAY)

앨빈 볼쉐이(Alveen Borshay)는 미주리주 카터빌에서 출생하여 캔자스주의 캔자스 시티에서 자랐고, 그 곳에서 위안도트(Wyandotte) 고교를 졸업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946년에 아버지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로 이주했다. 오클랜드 공항 내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현재의 남편 아놀드 볼쉐이(Arnold Borshay)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출연자

아놀드 볼쉐이(ARNOLD BORSHAY)

아놀드 볼쉐이(Arnold Borshay)는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에서 태어나, 근교인 알라메다에서 성장했다. 1960년에 가이객스 부동산(Gygax Realty)에 입사하여 주거용 부동산 영업 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1981년에는 가이객스 부동산의 소유주 및 중개인으로서 트라이 시티 지역에 6개의 지점을 가진 중견 업체로 확장하기에 이른다. 계속 부동산 업계에서 종사하다가 1993년에 은퇴했다. 아놀드와 앨빈 부부는 슬하에 던킨, 드니스 그리고 디안 세 자녀를 두고 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에서 거주해 왔다.